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2010. 9. 29.

| 최근 주요 제조업 경기 동향

■ 제조업 경기 동향

7월 현재 제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5.9%(잠정치)를 기록하며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재고-출하 사이클로 볼 경우에도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제조업 경기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조업 부문별 경기 동향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차이가 존재한다. **(내수-수출) 최근 제조업 경기 호조는 내수 보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5월 이후 제조업의 수출 출하지수 증가율이 내수 출하지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공업구조별)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중공업과 경공업의 7월 현재 생산 증가율 격차는 약 14%p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 월평균 12%p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내 대기업 생산증가율과 중소기업 생산증가율 격차는 2009년 12월 24%p에서 7월 현재 1%p 정도로 축소되었다.

(산업형태별) 가공조립형 산업이 기초소재형 및 생활관련 산업보다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가공조립형 산업이 수출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별)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본재 및 중간재 산업이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비재 산업에 비해 생산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재 생산 증가세가 2010년 5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 제조업 내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CT - 비ICT) ICT 산업과 비ICT산업 생산의 격차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 격차폭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ICT 산업 내에서도 반도체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와 같은 품목들은 침체를 지속중이다.

(주요 제조업종 및 건설업 경기 국면 판단) 재고-출하 사이클과 생산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제조업종과 건설업의 2010년 7월 현재 경기 국면을 판단해 보면, <호황 산업>은 화학, IT, 자동차, 1차금속 등이 해당된다. <회복 산업>으로는 기계 산업을 들 수 있는데, 기계 산업 생산 증가율은 최근까지도 높아지는 추세를 지속중이고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재고 조정이 진행중이다. <침체 산업>으로는 건설, 조선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가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생산도 큰 폭의 감소를 지속중이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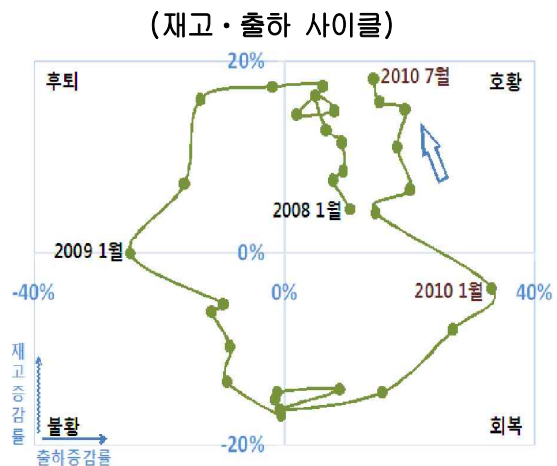
첫째,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하반기 이후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호·불황이 단기간 내 반복되는 경기 급변동이 우려되고 있어 경기 변동성 축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공급과잉 문제로 장기 불황을 지속하고 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내 리스크가 경제전체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전략 마련을 통해 수출 경기 하강에 대응해야 한다.

1. 제조업 경기 동향

- (생산)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9년 11월 이후 9개월 동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함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0년 1월 전년동월대비 38.9%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낮아져 7월 현재 15.9%(잠정치)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금융위기 이전의 약 85%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제조업 내 설비투자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고-출하) 제조업 경기는 재고-출하 사이클상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하는 경기 호황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
 - 재고-출하 사이클상 제조업은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하는 경기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최근 출하 증가율은 소폭 둔화되고 있는 반면 재고증가율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냄

< 제조업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제조업 부문별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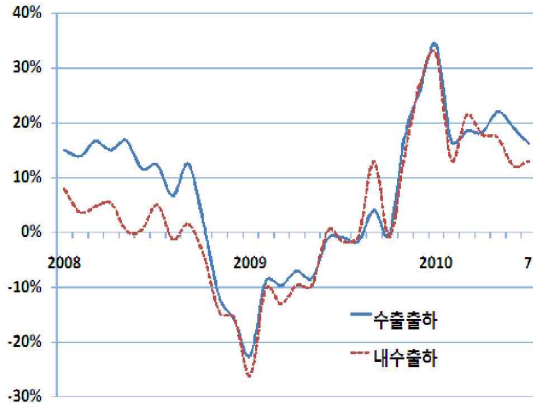
○ (제조업 내수·수출 출하별) 2010년 5월 이후 수출 출하지수 증가율이 내수 출하지수 증가율을 상회함

- 2010년 1/4분기까지 제조업의 수출 출하지수 증가율과 내수 출하지수 증가율은 동조화 현상을 지속함
- 그러나, 2010년 이후 5월 이후 수출 출하지수 증가율이 내수 출하지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냄
 - 2010년 3월 내수 출하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약 21%로 수출 출하지수 증가율 약 1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그러나 4월 이후 수출 출하지수 증가율이 내수 출하지수 증가율을 상회하여 2010년 7월 현재 내수 출하지수 증가율은 13%로 수출 출하지수 증가율 16%를 하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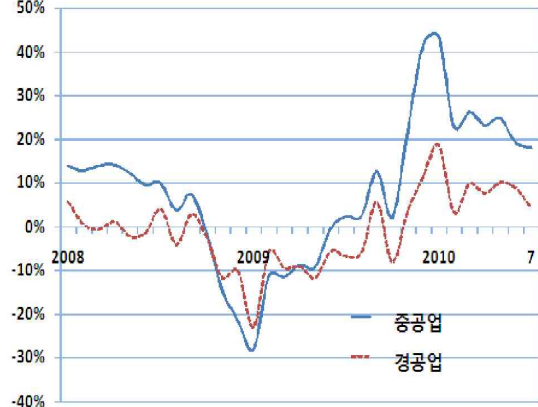
○ (공업구조별)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공업과 경공업의 7월 현재 생산 증가율 격차는 약 14%p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 월평균 12%p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중공업 생산 증가율은 2010년 1~7월 월평균 25.4%, 7월 현재 약 1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 경공업 생산 증가율은 2010년 1~7월 월평균 9%, 7월 현재 약 4%에 불과함

< 내수·수출 출하 지수 증가율 >



< 공업구조별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기업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2월 제조업 내 대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약 44%로 중소기업의 약 20%와 24%p의 격차를 보임

※ 통계청의 광공업동향조사에서는 제조업중 대기업은 상시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 55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중소기업은 상시종사자 30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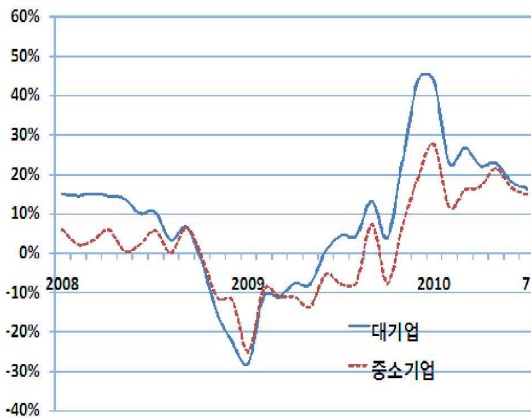
- 그러나, 이후 격차가 좁혀져 대기업 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 16%)과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15%)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을 기록

○ (산업형태별) 가공조립형 산업이 기초소재형 및 생활관련 산업보다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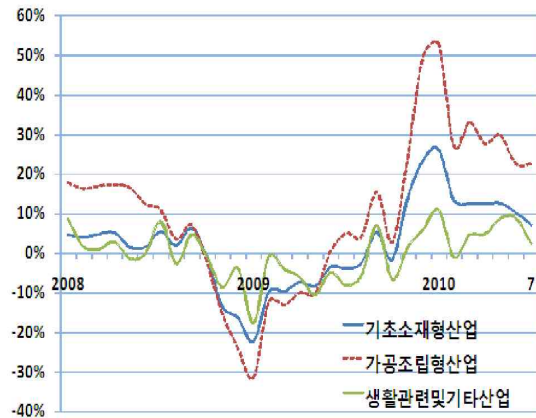
1) 가공 조립형 산업은 자본재 산업 또는 광의의 기계공업으로 기술 집약적, 에너지 절약적인 하이테크 산업을 의미함. 기초소재형 산업은 섬유, 목재, 석유정제, 화학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제1차 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음. 생활 관련 산업은 음식료품, 음료, 담배, 신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보고서 상 산업군별 분

-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가공조립형 산업이 수출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 일부 경공업 제품들과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공조립형 산업에 비해 생산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생활관련 산업은 음식료, 의류 등 다수의 경공업 제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수출보다 미약한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세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기업규모별 생산증가율 >



< 산업형태별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재별) 자본재 및 중간재 산업이 소비재 산업에 비해 생산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²⁾

류」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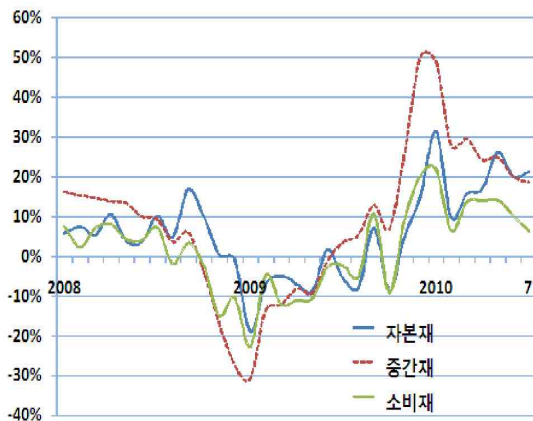
- 2) 산업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보고서 상 산업군별 분류」를 참조.

- 생산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본재와 중간재 산업의 생산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본재 생산 증가세가 2010년 5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소비재 산업의 경우 최근에 들어 10% 미만의 낮은 생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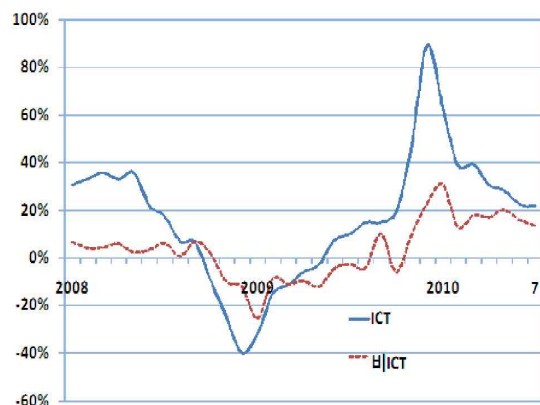
○ (ICT - 비ICT) ICT 산업과 비ICT산업 생산의 격차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 격차폭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임

- ICT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0년 7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약 22%로 비ICT 산업의 생산 증가율 약 13%와 9%p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다만, ICT 산업 내에서도 반도체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와 같은 중국, 동남아 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품목들은 침체를 지속중임³⁾

< 재별 생산증가율 >



< ICT · 비ICT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ICT 산업 내 반도체 제조업(2010년 7월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율 37.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21.7%), 전자부품 제조업(18.7%)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0.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3.7%) 등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 주요 제조업종 및 건설업 경기 국면 판단⁴⁾

① 호황 산업: 화학, IT, 자동차, 1차금속

- (화학 산업) 현 호황 국면이나 경기 후퇴 국면 진입이 임박

-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 내수시장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는 모습

- (IT 산업) 경기 호황 국면에 위치

- 생산 증가율은 2009년 말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수출 출하증가율이 내수 출하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모습이 지속중

- (자동차 산업) 현 호황 국면의 지속, 내수 시장의 부진 가능성 대두

- 생산 증가율은 2010년 초를 기점을 낮아지고 있으나,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0년 3월 이후 내수 출하 증가세가 수출 출하 증가세보다 크게 낮아지는 괴리 현상이 발생
- 수출 출하 증가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들어 전체 출하 증가율도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1차금속 산업) 현 호황 국면이나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증대

- 생산 증가율보다 출하 증가율이 더 빠르게 하락하여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
-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② 회복 산업: 기계

- (기계 산업) 현 경기 회복 국면, 호황 국면으로의 진입 단계에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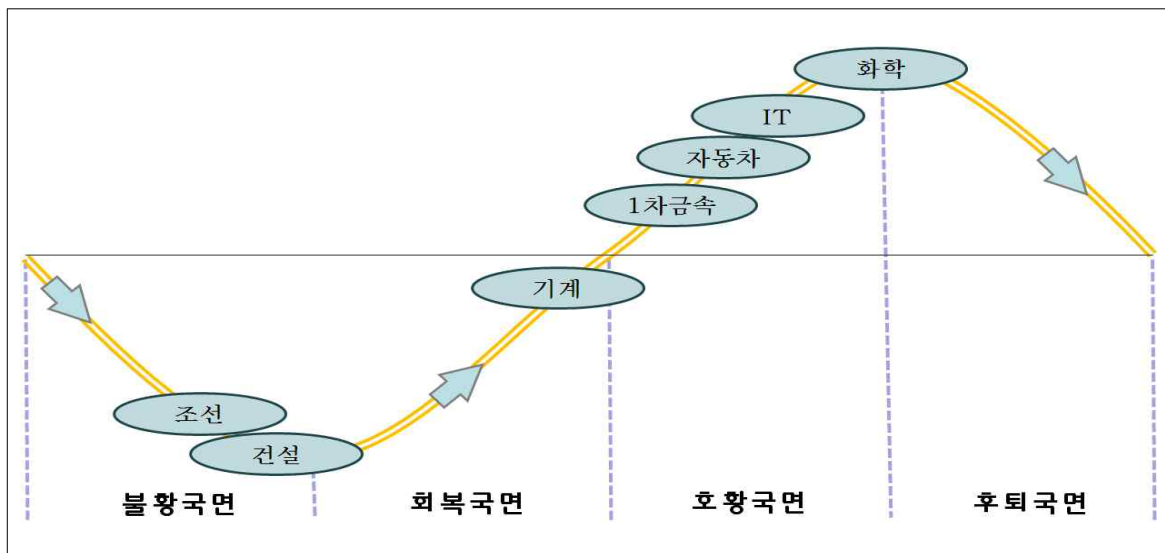
4)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주요 제조업종 및 건설업 경기 동향」 참조.

- 생산 증가율은 최근까지도 높아지는 추세를 지속중
- 수출 출하 증가율이 내수 출하 증가율을 상회,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재고 조정이 진행중

③ 침체 산업: 건설, 조선

- (조선업)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수주가 소폭 개선중
 - 생산지수 증감률이 2010년 2월 이후 10%대의 큰 폭의 감소율을 지속중
 - 신규수주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건설업) 불황 국면 지속 후 최근 소폭 반등
 - 2010년 2/4분기 건축 부문 수주액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시현, 토목 부문 건설수주액도 7월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
 - 전국의 미분양주택수는 지방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중

< 주요 제조업종 및 건설업 경기 국면 판단 >



3. 시사점

첫째,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올해 하반기 이후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경기 변동성 축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외환위기 직후나 IT 버블 붕괴 시기 직후 등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짧은 시기에 호·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사이클 단축 현상이 재현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 정책은 경기 진정이나 부양 등의 방향성보다는 급격한 변동성을 방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둘째,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로 장기간 경기 불황을 지속하고 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조선업과 국내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중인 건설업 등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 미봉책에 불과한 산업 지원책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 내 리스크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전염효과를 방지해야 할 것임

셋째, 기업은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전략 마련을 통해 향후 우려되는 수출 경기 하강에 대응해야 한다.

-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주력 수출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 및 선호도 변화, 경쟁 기업의 마케팅 전략 파악, 해당국 정부의 무역 규제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특히, 기계, 자동차 등의 산업은 엔고, 외국 경쟁 기업의 부진에 따른 반사 이익 등이 수출 호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 이러한 일시적 효과가 소멸되고 난 뒤의 체계적인 시장점유율 확보 전략 마련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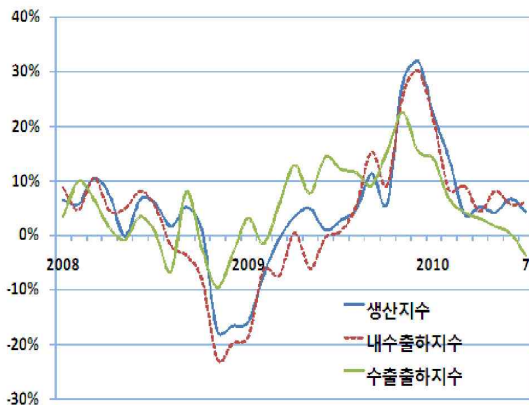
【별첨 1】 주요 제조업종 및 건설업 경기 동향

○ (화학 산업)5) 현 호황 국면이나 경기 후퇴 국면 진입이 임박

- (생산) 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은 2009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약 32%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7월에는 약 4%에 그치고 있음
- (시장) 화학 제품에 대한 내수시장 수요 증가세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냄
 - 2010년 7월 화학제품에 대한 내수출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약 6%, 수출출하증가율은 약 -4%를 기록함
- (재고-출하) 화학 산업의 출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져 경기 후퇴 국면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화학 산업 >

(생산 · 내수출하 · 수출출하 증가율)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 화학산업은 통계청 광공업동향조사상 산업 분류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산업임.

○ (1차금속 산업) 현 호황 국면이나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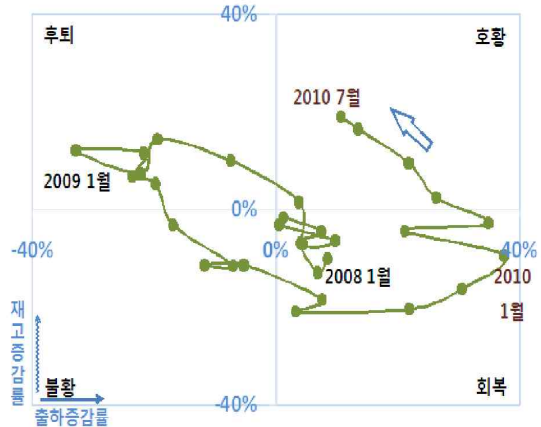
- (생산) 철강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1차금속 산업은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 1차금속 산업은 2010년 1월 전년동월대비 51%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7월에는 15% 수준으로 하락함
- (시장) 1차금속 제품에 대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며 생산 증가율보다 출하 증가율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2010년 7월 1차금속 제품에 대한 내수출하 증가율과 수출출하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모두 약 11%를 기록함
- (재고-출하) 생산 증가세보다 출하 증가세가 더 빠르게 하락하여 산업 내 재고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냄
 - 현재 출하와 재고가 모두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가까운 시기에 출하증가율이 감소로 돌아서는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됨

< 1차금속 산업 >

(생산 · 내수출하 · 수출출하 증가율)



(재고 · 출하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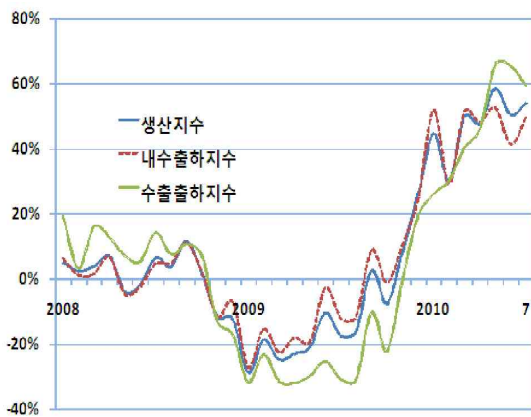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기계 산업)6) 현 경기 회복 국면, 호황 국면으로의 진입 단계에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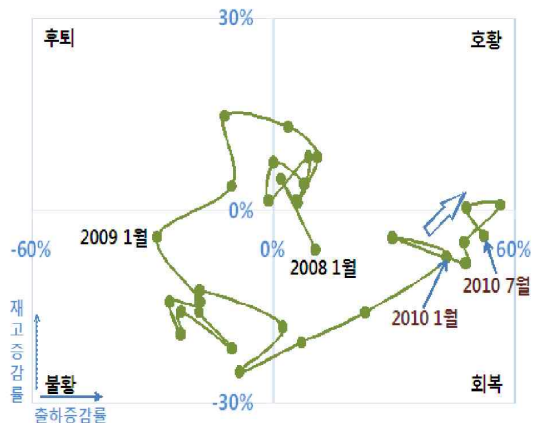
- (생산) 2010년 7월 현재 기계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약 54%로 제조업 내 다른 산업에 비해 최근까지도 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지속중임
- (시장) 2010년 2월 이후 기계 산업의 수출 출하 증가율이 내수 출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2010년 7월 현재 내수 출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약 50%, 수출 출하 증가율은 59%를 기록중임
 - 다만 2010년 5월 이후 수출 출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재고-출하) 기계 산업은 재고-출하 사이클상 다른 주요 업종들에 비해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 제조업종들이 경기 회복의 단계를 지나 경기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기계 산업은 현재 경기 회복 국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계 산업 >

(생산 · 내수출하 · 수출출하 증가율)



(재고 · 출하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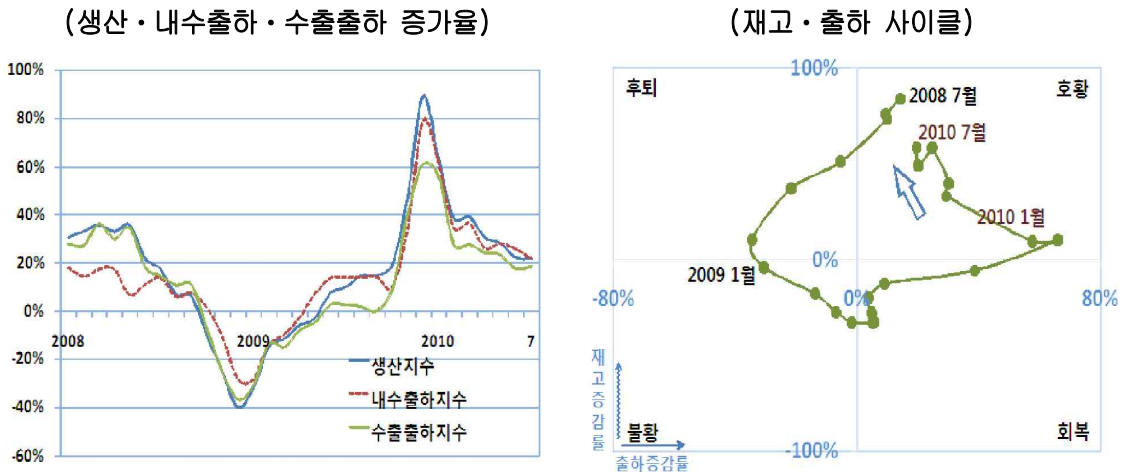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6) 기계 산업은 통계청 광공업동향조사상 산업 분류중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임.

○ (IT 산업) 경기 호황 국면에 위치

- (생산) IT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09년 말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지속중임
 - IT 산업 생산은 2009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약 89% 증가에서 2010년 7월 현재 22%로 둔화됨
- (시장) IT 제품에 대한 수출 출하증가율이 내수 출하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모습이 지속중임
 - 금융위기 이전에는 IT 제품에 대한 수출 출하증가율이 내수 출하증가율보다 높았으나 2009년 초반을 기점으로 이 관계가 역전됨
 - 2010년 7월 현재 IT 산업의 내수 출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약 22%, 수출 출하 증가율은 약 18%를 기록
- (재고-출하) IT 산업은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IT 산업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생산 증가율, 재고·출하사이클은 ICT 산업 기준
 3) 내수 및 수출 출하증가율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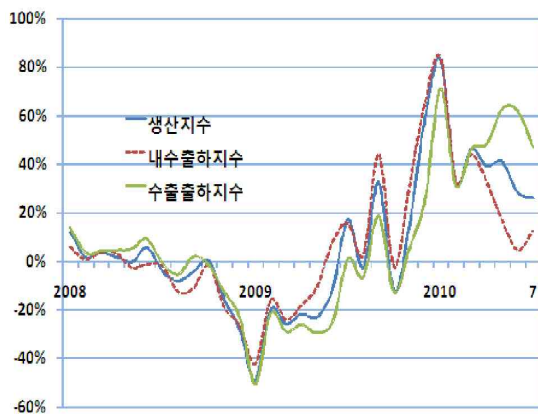
7) IT 산업은 통계청 광공업동향조사상 산업 분류중 「ICT 제조업」 산업임.

○ (자동차 산업)⁸⁾ 현 호황 국면의 지속, 내수 시장의 부진 가능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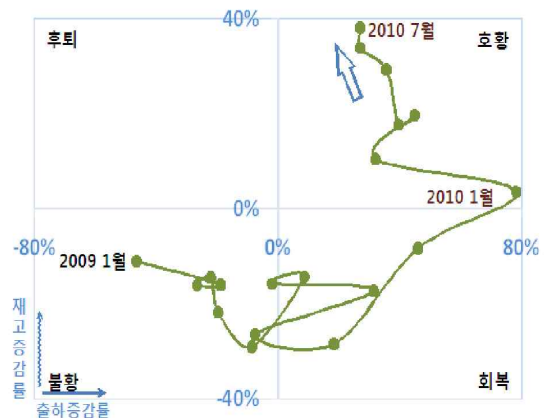
- (생산)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0년 초를 기점을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냄
 - 자동차 산업 생산은 2010년 1월 전년동월대비 약 83%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어 7월 현재 26%를 기록하고 있음
- (시장) 2010년 3월 이후 내수 출하 증가세가 수출 출하 증가세보다 크게 낮아지는 괴리 현상이 발생
 - 2010년 7월 현재 자동차 제품의 내수 출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2%, 수출 출하 증가율은 47%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의 수출 출하 증가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들어 전체 출하 증가율도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재고-출하) 자동차 산업은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자동차 산업 >

(생산·내수출하·수출출하 증가율)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 자동차 산업은 통계청 광공업동향조사상 산업 분류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임.

○ (조선업)⁹⁾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수주가 소폭 개선중

- (생산) 조선업은 2009년의 경기 후퇴 국면을 지나 2010년 불황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0년 2월 이후 10%대의 큰 폭의 감소율을 지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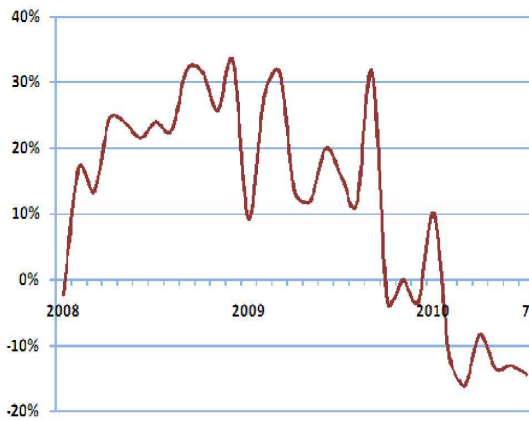
- (수주) 조선업의 수주 잔량은 신규 수주 급감으로 정점 대비 약 70% 수준으로 감소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의 수주 잔량은 2008년 3/4분기 5,724만 CGT¹⁰⁾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10년 2/4분기말 현재 4,043만 CGT로 정점 대비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신규수주도 2010년 2/4분기 298만 CGT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인 2007~2008년 분기당 평균인 약 500만 CGT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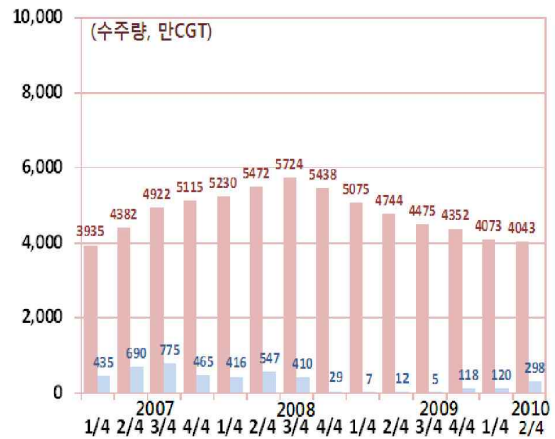
< 조선업 >

(선박 및 보트건조업 생산 증가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선박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



자료: 한국조선협회.
주: 신규수주량, 수주잔량은 9개 회원사 기준.

9) 조선업은 통계청 광공업동향조사상 산업 분류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산업임.

10)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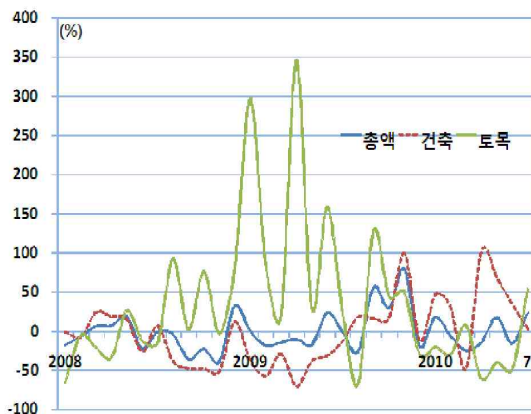
○ (건설업) 불황 국면 지속 후 최근 소폭 반등

- (건설수주) 2009년 하반기 이후 2010년 초까지의 침체 국면에서 2/4분기에는 전체 건설수주액이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2/4분기중 건축 부문 수주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토목 부문 건설수주액도 7월에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
 - 산업의 전반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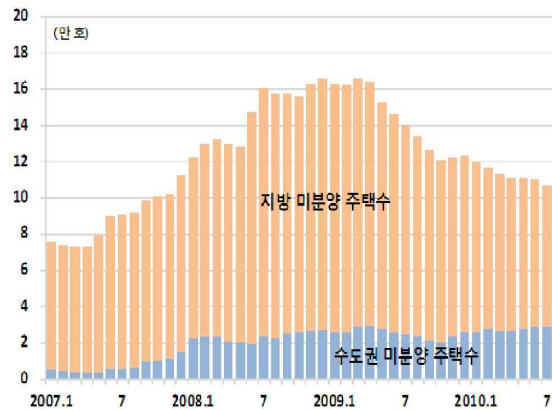
- (미분양주택) 전국의 미분양주택수는 지방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중이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중
 - 전국 미분양주택수는 2010년 12월말 12만 3,297호에서 2010년 7월말 현재 10만 6,464호로 감소, 그러나 2000~06년 연평균 약 5만여호 수준보다는 두 배 정도의 높은 수준을 기록
 - 그러나 수도권 미분양주택수는 같은 기간 2만 5,826호에서 2만 8,151호로 오히려 증가

< 건설업 >

(명목 건설수주액 증감률)



(미분양주택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별첨 2】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보고서 상 산업군별 분류

제조업 생산지수	설 명	
재별	용도와 수요대상을 고려하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등으로 구분함	
	자본재	주로 각 산업에서의 생산관련 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설비나 장비류로서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제품
	중간재	광공업 및 타산업의 원재료, 연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제품
	소비재	주로 개인용,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여기에 분류되나, 개인용, 가정용 뿐만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집기나 비품 등에 대하여도 그 제품이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
공업구조별	제조업부문의 중분류 업종에 따라 경공업제품(169개 품목)과 중화학공업제품(448개 품목)으로 분류함	
	경공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 의복 및 목피,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고무 및 플라스틱, 가구, 기타제조업
	중공업	펄프 및 종이, 석유정제, 화학제품, 의약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업규모별	상시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대 기 업	상시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 55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소기업	상시종사자 300명 미만인 기업
산업형태별	업종을 산업특성에 따라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으로 구분	
	기초소재형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속, 화학 등의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섬유제품, 나무 및 목재제품, 펄프 및 종이,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제1차 금속)
	가공조립형	자본재 산업 또는 광의의 기계공업으로 기술 집약적, 에너지 절약적인 하이테크 산업(금속가공, 기계장비, 의료정밀, 전기장비,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생활관련형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제재 또는 산업의 전 생산과정을 통하여 최종단계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음식료품, 음료, 담배, 의복 및 모피, 가죽 및 신발, 인쇄 및 기록매체, 가구, 기타제조업)
ICT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의 품목 71개를 지수화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메타데이터 설명자료에서 인용.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